

지금 이 시각

2024. 8 TIME NOW

스물여섯번째



Pighead Lab



9 773058 233003

ISSN 3058-2334

김희진_ 빛깊는사람

원고 수 ★★★★★★★★★★★★

김유주_ 태국에서 라오스로

원고 수 ★★★★★★★★★★★★

X_ 그 곳에 가고싶다 : 화성(華城)

원고 수 ★★★

오종원_ 자전거를 타자 : 러닝과 등산 (2)

원고 수 ★★★★★★★★★★★★★★★★★★★★

마주_ 탈레 노이 이야기[Thale Noi]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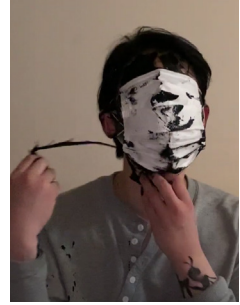
원고 수 ★★

<지금 이시각>은 주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행위에 집중합니다. 창작의 지속과 그 누적이 가져올 성과에 대해 연습하고 시도하는 장으로써 선보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감을 얻고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향해가는 노력과 인내가 있을 때, 분명 목표에 도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은 그런 행위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며.

빛값는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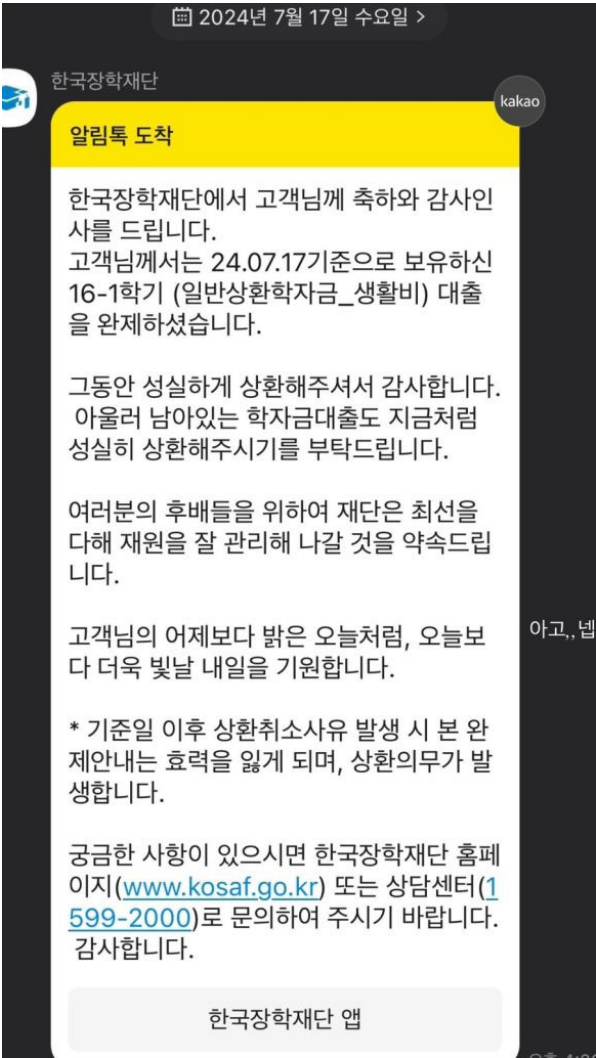
김 희 진
노동자

대학에 다니면서 당연히/자연히 학자금에 관련한 대출(들)을 받았는데, 개중에는 당시의 생활을 위한 조건 비용(?)도 포함되었다. 기억은 흐릿해도 아무렴 당시에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내 생활을 충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아님 가족의 가계 등에 부족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어쨌든 이번에 값은 학교에 지불한 비용은 아니고 (아마도) 나/우리가 각자의 도생을 위하여 어디에 사용한 것.

그러니까 학자금은 당시의 도생을 위한 비용은 아닌 것이었다. 이제와 생각하면 삶에 유용한 과정 또한 아니었고, 다만 어떠한 결론(학위와 같은 라이선스)으로 남아있다. 결국 누군가 그것을 취득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에 연루되기도 했고. 하긴 지금과 같은 세계관에서 비/물질 라이선스나 증표, 혹은 표식이나 흔적이 아니면 무엇을 가치라고 인정할까.

어쨌든 그것을 위해 융통한 돈을 큰 생각을 포함하지 않고, 작은 금액부터 값아낸다. 그 중 이번 차례가 생활비 대출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부분적) 상황이 마무리도자, 대부업체(?)들에게 큰 축하를 받았는데, 초면에는 그것을 일종의 조롱으로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좀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자본주의 또는 그를 품은, 그에 준하는, 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회를 규탄하고 비판하고자 별 병을 다 앓고 있는 떠버리들은 아무래도 체계 자체에 불신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실 어떤 라이선스도 당신(누군가)의 신원을 보증하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당연한 일 중 하나인데, 구조가 그것을 숨기거나 기만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물론 나도- 속아 허구를 좇는다. 그래서 다양한 이름의 라이선스가 생겼고, 각자 취득한 자격의 이름으로 공허함을 노래한다. 하지만 매번 기반의 밑에서 쉬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짜증나는 일.



공동체(에서)는 무엇에 빚졌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편이다. 물론 그것이 일종의 찬미와 같은 성격도 갖는다. 어떤 성과나 결론이 하나의 힘으로 일구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따져보면 학위를 취득하는 일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일 자체가 어딘가에 빚지고 있는 일이다. 사실 숨쉬고 있는 것도 어디에 빚지는 일임;;

어딘지 모를 죄책감을 매번 느끼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 같다. 결국 갚지 못할 일을 구태여 벌이는 것 같아서. 언제든 누군가 내 가슴팍을 치며 빚 갚으라 소리치면 어찌지? 나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 나를 빌려주지?

악몽이 그것 자체로 유효한 이유는 배제된/하려고 노력했던 세계를 어떻게든 포섭하는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붙은 '악'이라는 멸칭은 오히려 어떤 의미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매 순간 오염된 기억을 채워 저장하는 일과 그것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정신적) 세계관에서 마주치는 기호와 그것에 관련한 감각 또는 의미는 다시 감응한 (매번의) 행위로 외부에 위임되는데, 그 과정이나 결과의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 심지어 있었던 자극의 경험도 생채기를 내지도 않는다. 본래 선한 것(으로 인식한 일들)보다 해로운 것이 -그것을 감추지 않기 때문에, 소유 또한 불가하기에- 달콤하다 .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억지로 꺼내어 하며 걷는 중에 우는 아이를 만나 무엇도 알지 못하는 채로 그것을 다독이는데, 서럽게 부서지는 그 낙하의 소리가 진동마다 가슴을 울리고 무너뜨린다. 그리고 다시 살아 피어오르는 일 또한 거스를 수 없어 가엾다. 🐈





태국에서 라오스로



김 유 주

존재하기를 꿈꾸는

태국 우돈타니 숙소에서 나와 버스 터미널을 가려는데 비가 내렸다. 이제 정들었으니 떠나지 말라고, 조금만 더 머물다 가라고 붙잡는 걸까. 우리는 꽤나 아쉬워했다.

여유 있게 터미널에 도착한 우리는 어느 카페에 들어가 땡볕 아래의 테이블에서 휴식을 취했다. 당연하게 에어컨은 없었다. 실내로 들어갔음에도 하늘이 드러나는 구조의 카페였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땡볕 아래를 걷고 옷이 땀으로 젖어도 그늘과 의자만 있다면 그곳이 한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아 들어가던 은행과 다르지 않았다.



사진_우돈타니 터미널의 국제버스

버스 시간이 되어 버스에 올랐다. 동남아를 여행하면서 나는 이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동 중에는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 한국에서 화장실을 자주 가던 나는 여행 시작부터 화장실에 대한 걱정이 컸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몇 시간씩 가지 않는 게 힘들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니 내가 화장실을 찾는 경우 높은 확률로 심리적인 이유란 것을 알게 됐다.

덕분에 나는 버스를 타면 눈을 감고 명상하듯 있는 버릇이 생겼다. 감사하게도 나는 이동수단만 타면 꿀잠을 자는데, 어떤 험한 이동수단을 타도 잘 잔다. 후에 인도 여행 중 만난 한국인 아주머니께 들은 얘기로는, 그것도 멀미의 일종이라고.

양 국기와 함께 <우돈타니-비엔티안>이라고 적힌 버스를 타는데, 기분이 요상하다. 버스의 출발지와 종착지가 다른 국가라니.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을 넘을 때도 육로를 이용했지만, 이 작은 터미널에 이 평범한 버스에 양국의 도시명이 딱하

니 적혀있는 걸 보니 괜시리 부럽다. 우리나라는 마치 섬나라이기도 한 양 나라를 벗어나려면 무조건 배나 비행기를 타야하는데, 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었던가.

내 나라 안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을 나라를 떠나니 느끼게 된다. 견문을 넓힌다는 말에는 이렇게 사소한 깨달음도 분명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국경을 쉬이 넘을 수 있어 그런지 도착 후의 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각 국의 분위기는 국경을 넘자마자 다르게 다가온다.)

비엔티안에 도착해 주린 배를 움켜쥐고 서둘러 환전소부터 찾았다. 1바트 당 497깍으로 환전을 했다. 기대 이상의 환율이었다. 잘 쳐준다는 환전소를 찾아 먼 길을 걸은 보람이 있었다. 갑자기 커진 화폐단위에 금고라도 안고 다니는 것처럼 왠지 긴장하게 됐다.

도착했을 당시 라오스는 디폴트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걱정을 달고 사는 나는 학창시절 세계지리 수업에서 중동의 경제위기로 범죄가 난무하다는 내용을 본 것이 떠올랐다. 물론, 십 수 년 전에 스치듯 봤던 교과서 내용이니 신빙성이 낮지만, 이미 나의 상상은 정보 왜곡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았다. ‘(누가 봐도 누추한 차림새의) 우리를 보고 강도가 칼을 내밀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당연한 이야기지만 외부인인 우리에게 경제위기라는 것이 느껴질 리 없었다.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귀한 상상력을 왜 그런 데에 쓰는 걸까.

사진_가장 먼저 할 일은 속옷과 양말을 빨아 널기



땀 흘리는 것은 익숙해졌고, 여전히 주린 배를 움켜쥐고 우리는 미리 알아봐둔 숙소를 향해 걸었다. 숙소는 아주 크고 넓은 가정집 같았는데 1층의 로비에는 서양인들이 자유롭게 앉아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와, 이거다. 이거 완전 내 배낭 여행 로망 그 자체네.’



사진_ 'WELCOME TO LAOS'

기대하며 방을 안내 받았다. 2층으로 올라가 빠-걱 대는 나무 바닥 복도를 지나 문을 열었다. 늦게 도착한 탓에 우리는 인기 없는 자리에 당첨 됐다. 가장 안 쪽과 출입문 바로 옆. 이층 침대의 위 층 자리였다. 우선 짐을 정리하고 씻고 능숙하게 속옷을 빨아 널어두고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우다다다’ 소리가 들렸다. 아주 커다란 쥐가 나무 바닥을 기운차게 달려서는 구석의 구멍으로 들어가다 엉덩이가 끼어 썰룩거리고 있었다.

‘위 층 침대라서 오히려 다행인데?’

하지만 자유의 대명사 같은 숙소는 외부를 차단하는 문에 잠금장치가 없었고 완전히 닫히지도 않았다. 걱정요정이 활동을 시작한다.

‘그냥 밖에서 자는 거랑 다를 게 없는데?’

나는 걱정요정을 애써 외면하고 배를 채우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마침 근처에 야시장이 있었다(우리는 도보 삼십분 정도는 가볍게 걸어 다녔으므로). 야시장은 소박했다. 그동안 봐왔던 야시장들과는 다르게 한적했지만, 화려한 불빛은 낭만이 있었다.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기대하며 야시장을 둘러봤다. 이미 앞서 여행했던 국가들에서 여러 야시장을 방문했기 때문일까. 기대와 달리 새롭게 흥미를 끄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낭만만큼은 마음에 들었다. 야시장 근처에는 젊은이들로 붐비는 휘거 기반의 술집이 있었는데, 야심차게 들어갔다가 낯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나왔다. 그들만의 흥과 이성에 대한 탐색이 넘치는 현장이었다.

나의 이십대가 떠올랐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나의 잠재력에 취해있던 때였다. 겁날 것이 없었다. 번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통장 잔고가 0인 날에도 두려운 것은 외로움 뿐이었다. 잊고 있었지만, 언제나 위풍당당해 우습기까지 하던 그런 날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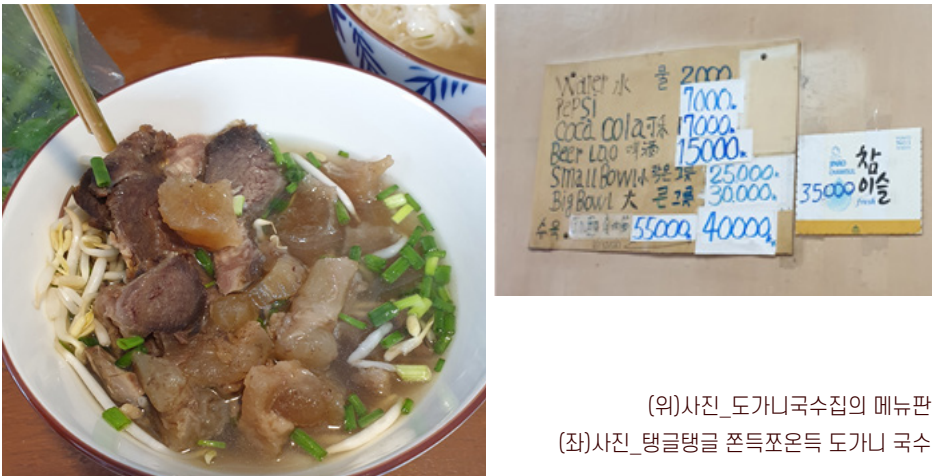
현재로 돌아와서, 나는 노포를 좋아한다.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한 것이, 백화점보다는 시장이, 에어컨 있는 카페보다는 길가에 벤치를 더 좋아한다. 야시장 근방에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다. 도가니 국수를 파는 곳인데 한국의 노포 느낌에 입장부터가 정겹다.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다더니 메뉴판부터가 한글이다.

사진_해가 저물어가는 야시장 풍경



도가니 국수와 맥주를 주문했다. 도가니가 가득한 국수와 차가운 얼음에 미지근한 맥주를 부어 먹었다.


‘야 이거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
한방에 납득이 가는 맛이다. 이번 맛집은 성공이다.



(위)사진_도가니국수집의 메뉴판
(좌)사진_탱글탱글 쫄쫄도가니 국수

쫄쫄쫄쫄 씹을 때마다 어금니가 곤적대는 도가니를 식사가 끝날 때까지 마음껏 씹고 맛 보고 삼킨다. 고기를 씹을 때마다 퍼지는 육향과 육질의 부드러움 그리고 도가니의 진한 맛에 달큰 개운한 국물까지. 완벽한 첫 끼였다. 비엔티안을 떠나는 날에도 아침에 부지런을 떨며 국수에 도가니까지 추가로 포장해 와서 숙소에서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게으름을 넘어서게 하는 맛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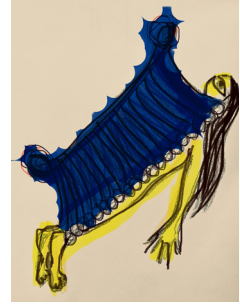
도가니 국수로 배를 든든히 채운 덕에 야시장은 건너뛰고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의 로비에서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도 씻고 로비로 가서 맥주를 마시고 이동의 피로를 풀며 수다를 떨다 방으로 돌아갔다. 피곤해서 당장이라도 뉘엿뉘엿 졸았는데, 열려있는 문이 신경 쓰여 잠을 설쳤다. 잠드는 걸 포기하고 가만 누워 새벽의 고요를 만끽했다. 고요함을 뚫고 작게 피어오르는 생의 활기가 느껴졌다. 침대에서 내려가 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라오스에서 보는 첫 일출이었다. 소곤소곤, 고요함을 끝내고 들려오는 시각의 소리들 그리고 이른 시간부터 펼쳐지는 동네 사람들의 풍경까지.
센치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건이었다. 

사진_숙소 테라스에서 본 아침 풍경. 조용하다.



그 곳에 가고싶다 : 화성(華城)



X

작가 & 전시기획자

화성은 이춘재가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동네로 나에게 기억된다. 이건 화성을 알기 전 마치 한 여성에 대한 떠도는 소문처럼 나에게 인식되었다. 아마도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2003년)’을 본 누구든 화성을 그렇게 80년 대 그 때 그 시골인 ‘화성’으로 기억할 것이다. 2014년 10월 내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나는 화성에 이사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누가 당신이 한 달 뒤 겪을 일을 알려줄 것인가? 내가 겪은 화성은 농촌에서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드러내며 여러 무법지대가 뒤섞인 뭔가 정의하기 힘든 도시공간이다.

2014년 가을 어느 한 일요일 나는 한가로운 오후에 홍대 정문 앞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면접을 보고 싶지 않냐는 질문이었다. 예술이 아닌 혹시 다른 분야에서도 직업을 찾는지 물어봤다. 헤드헌터였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헤드헌터이었다.

당시 나는 한국에 들어온지 거의 한 달이 되가고 있었다. 홍대 로컬 스티치(Local Stitch)에서 무료로 살면서 밤에 호스텔을 지키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을 통해 불광동 옛 질병관리소 앞에 주 ‘아트 마켓’을 주관하는 기획자를 소개 받았다. 하지만 나는 한 달에 30만원 채 안되는 돈을 주며 이상한 노가다 비슷한 일을 해주는 것도 진저리가 났다. 연세대를 나왔다고 하는 기획자는 매일 술을 퍼마시고 연

세대의 뺨을 내세우며 자기가 매우 똑똑하다는 말만 해대는 사람이었다. 그는 시에서 주관하거나 공공예술의 지원금을 자신의 인맥과 학벌로 따내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매우 자신의 인맥을 중요시 했고 여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느꼈다. 한국 안에서만 살고 본 뭔가 다양성과 동등성 그리고 진정한 예술의 정신을 모르는 나에게겐 고리타본한 공무원과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당시 나는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채 안되었고 진정한 내가 원하는 예술을 같이 할 사

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갤러리 두 곳에 면접을 봤고 아트 마켓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특히 문화예술에서 소비주의로 물고가는 분위기도 내가 원하는 이상향은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코걸 스티치를 벗어나고 싶었다. 일을 구하기로 했고 그 헤드헌터에게 긍정적인 답장을 보내며 면접을 보러 갔다. 범계역에서 헤드헌터의 차를 타고 다른 지원자와 화성의 팔탄면 서근리로 향했다. 회사는 화성의 잘나가는 동쪽 동탄이 아닌 평택, 아산과 가까운 중앙 지점인 팔탄면이었다. 다행히 향남읍과 가까워서 주말에는 서울 사당역으로 가는 직행 버스를 탈 수 있었다. 헤드헌터는 대기업에서 15년 정도 일을 한 경력자였다. 당시 면접을 볼 때는 몰랐지만, 이후 내가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꾸준히 연락을 했었다.

헤드헌터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로 서울 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 대대로 강남에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에서 일하고 박사도 따서 강의도 나가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자기 개발을 한 오십대 한국 남성이었다. 단순히 부모 덕이 아니라 게으르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산 부르주아였다. 하지만 겉모습에서는 절대로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 전형적 외유내강 스타일이었다. 면접을 본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제조하는 기업이었다. 회사는 영어, 독일어가 유능한 유학파를 원했다. 나는 내가 건축에 관심이 있기에 뭔가 콘크리트의 재료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정문을 나서는데 커다란 공장에 빛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앤디워홀의 'Factory' 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이 곳에 오기로 두서없이 결정했다. 헤드헌터는 나의 결정에 놀라기도 했지만 회사 대표가 나를 맘에 들어한다면서 당장 출근을 원했고 집이 필요하면 월세도 대주겠다고 말을 전해주었다. 이로 인해 결국 나는 내가 바라던 '집'도 얻고 '일'도 같이 얻었다. 그래서 당시 서울 'A' 갤러리의 면접 합격을 거절하고 화성 회사로 결정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옳았나 싶기도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화성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 화성은 '와일드' 한 공간 이었다.

내가 다녔 던 회사 앞은 허허 벌판이고 '월드 마트'가 있었다. 내가 사는 원룸이 바로 회사 앞이고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곳이 었다. 월드 마트는 주변 공장 지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간이었다. 나도 역시 장을 봐야 되기에 약간은 외국인 스타일을 풍기며 들어갔지만 사실 중국 식품과 한국 식품이 허다한 그냥 말이 '월드 마트'지 진정한 이태원의 월드 마트는 아니었다. 소비자가 '월드' 한 가보다... 난 속으로 이렇게 정의했다.

그리고 그 월드 마트 옆에 로버트 할리와 같이 사진찍은 배테랑 카센터 사장님의 사업소

가 중국집 옆으로 있었다. 사장님 집에서 내 첫 차인 마티즈를 수도 없이 고친 기억이 있다. 사장님은 오늘 날 10년이 지나도 나에게 생일축하 카톡을 보내신다. 사장님은 등산을 좋아하셨고 항상 “한 길만 파야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다. 사실 성공한 사업가로 카센타가 두 곳에 있다.

당시 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서 모든 게 다 낯설었다. 회사는 독일 기계가 많았고 공장이라 24시간 돌아가서 야근을 밥먹듯이 했다. 그리고 해외 출장도 자주 있었다. 회사를 다니면서 발견한 것은 한국사람들의 일상적 대화와 그에 어울리지 않는 ‘나의 대화법’이었다. 직장인들의 상투적인 대화는 대부분 비트코인, 주식, 주말 여행, 아이들 교육과 회사 내부 정치가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 처음에는 내가 어디에도 끼기 힘들었다 특히 나는 해외 업무 위주로 해외 라이선스 회사 관리, 공장 외자제 관리, 해외 계약 체결 등 직급에 비해 큰 업무를 맡아서 시작했고 대표, 이사진과 주로 일하며 외국 미팅을 시도 때도 없이 주관해야했다. 바쁘고 또 바쁘지만 꾀를 부리는 편이 아닌 나였기에 결국 일이 다 나에게 왔다.

한 3년 동안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프랑스인지 독일인지 미국인지 한국인지 내 머리 속이 뒤죽박죽이었다. 당시 초반에는 화성이 아닌 공간에서 살면서 내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다. 주말마다 서울에 왔고 차를 몰고 이리저리 여행하고 작업도 하려고 했다.

당시 회사 생활 동안 주말에 화성을 돌아다니면서 살인의 추억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 화성의 향남 신도시, 동탄 신도시, 그리고 공항을 가야 될 때면 지나는 송산 마도, 내가 놀러갔던 제부도는 화성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특히 회사 근처 월문 온천은 주말에 경기도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화성은 운전하면 많지는 않아도 뭔가 하나씩 튀어나오는 공간이 있다. 대부분 논을 지나 도시가 되어가는 공간을 보여주거나 산업화 된 공장이지만 그래도 뭔가 거친 공간에 건물이 들어서 가끔씩 사람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고 해야되나? 도시도 아니지만 도시처럼 보이고 시골도 아니지만 시골처럼 보이기도 한 공간이다.

그리고 첫 회사에서 1년이 넘어서 경쟁 회사에 들어가면서 아산과 평택을 경험하였다. 화성의 연장선이지만 뭔가 화성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경기도, 충청도의 도시였다. 이제는 평택은 삼성전자가 고덕을 장악하고 미군이 많이 빠지면서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태원’처럼 송탄과 같은 이국적인 풍경을 더 많이 보여줄 거 같다.

난 평택에서는 안중읍에 살았는데 빌라에는 조선족과 러시아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심지어 동네 병원에 가면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 내가 외국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다. 밤마다 가끔 중국어로 크게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말을 섞지는 않았다. 주변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거 같은데 내가

내가 살던 빌라 근처에 ‘개미인력’ 사무실에는 새벽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큰 봉고차가 사람을 싣고 어디론가 가곤하였다.



내가 다닌 평택 회사와 회사 개 ‘순이’ [2016년~2018년, 평택]



회식의 자리 노래는 빠질 수 없지 ~ [2018년, 2019년, 화성]

예전에 흔한 ‘개미인력’이란 상호 표현이 아직까지 있는 줄 그 때 알았었다.

2015년 여름 화성의 제부도에 갔었다. 해변가에 홀로 앉아서 이쁜 조개를 몇 개 주우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당시 난 머리 속이 온통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는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질문으로 꼭 차있었고 막연한 미래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가야할 길은 예술인데 뭐하는 것이지? 나의 꿈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인가?

나는 계속 꿈을 꾸고 살았다. 나만의 도시, 나만의 공간에 관한 꿈이다. 대도시의 피폐하고 삭막한 도시공간도 완전 시골도 아닌 공간 말이다. 뭔가 화성처럼 거칠어도 뭔가 하나씩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공간 그렇지만 화성의 산업지대도 아파트만 뻗뻗히 들어선 평택 청북면의 아파트 신도시도 아니었다.

인간적 다양성이 숨어 있는 공간, 역사나 이야기가 담겨진 공간, 더 나아가 건축적이고 미학적인 공간... 그렇지만 막연한 형태만 그리며 고민했었다. 당시는 나의 공간도 나의 꿈도 막막했다.

하지만 내가 찾는 도시 공간에 대한 정의는 오로지 내가 신도시 공간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명료해지기 시작했다고 지금에서야 느껴진다. 나는 몰랐지만 나의 꿈은 계속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

‘이건 꿈이야 (C’est rêve)’ 청바지의 행인, [2019년,평택시 안중읍]





자전거를 타자 : 러닝과 등산(2)

오 종 원

문화예술인력 / 피그헤드랩 운영

※ 지난달 러닝의 장점에 이어서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이 있는 법. 특히 이 단점은 내가 직접 겪은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웬만한 입문자들이 한번 이상은 겪거나 고민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첫째, 컨디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어떤 운동이고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운동은 없겠지만, 경험상 러닝은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 따라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 꽤 큰 편이다. 꼭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경우에 문제는 식사 시간이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내게는 러닝을 주력 운동으로 삼지 못하는 요인이다.

식사를 마친지 얼마 안되었을 때, 잠깐 뛰기라도 했다가 늑골이 아프거나 호흡 조절이 안 되고, 몸이 부대끼는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뭐 횡단보도가 신호가 바뀌기 직전이라 몇 초 정도 뛰는 것이라면 모를까, 나름 오늘의 운동 계획을 세우고 러닝을 시작하였을 때에 그런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여간 운동을 유지하기 힘들다. 어느 운동이고 식사 후 최소 2시간 정도 지나서 운동을 하라는 말이 있다. 어느정도 신체가 소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서 몸을 움직이라는 것이다.

보편적인 한국의 직장인이라면 보통 출근 전이나 퇴근 후, 둘 중 한 시간대를 선택해 운동을 할 것이다. 두 시간대 다 장단점이 있고, 내 경우에는 식사를 어느정도 해놓고 몸이 풀려있는 저녁시간대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해서 저녁식사를 시작하면, 정말 빨라야 7~8시 정도이다. 조금 서두른다 하여도 소화시키는 시간까지 잡으면 못해도 9시나 넘어야 약속의 두 시간을 넘길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러닝을 해야겠는 걸” 결심을 하여도 너무 늦은 시간대에 부담감이 종종 생긴다.

물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것들도 많다. 가령 전날 과음을 조금 했을 경우도 있고 또 잠

을 잘못 자 피곤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여름철 태양이 뜨거워 피부가 아플 지경이거나, 너무 습해서 숨이 거칠어질 때,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오늘날따라 유독 신발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옷이나 양말에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신체 부위가 옷 어딘가에 스쳐서 따갑게 느껴지는 등. 이 모든 요인들이 호흡을 거칠게 만들고 심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한다. 무엇보다 다리를 무겁게 만든다.

둘째, 힘들면 걷고 싶어진다. 다리가 무거워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걷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러닝은 정신력을 정말 많이 소비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걷기’와 ‘뛰기’라는 행동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자전거나 등산의 경우, 컨디션에 따라 다소 느려질 수는 있어도 페달을 계속 밟거나, 오르막을 오르던가 하는 행위는 지속된다. 즉 멈추지 않는 한 그 행위는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러닝은 멈추기 전에 바로 걷기라는 행위가 존재하고 의외로 이게 너무 달달하다. 특히나 자신의 페이스 조절에 아직 미숙한 상태라면 달리기를 통해 이미 거칠어진 호흡과 요동을 치는 심장, 긴장이 팽팽한 다리 근육 때문에 걷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당연히 걷기라는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달리기 훈련에도 걷기와 뛰기를 반복하는 인터벌 훈련이 있고, 또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걷고 뛰는 것을 반복하는 정도면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운동일 테다. 하지만 내가 특정 거리에 특정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을 때에는 그것은 방해요인이 된다. 이동하는 스포츠가 대부분 그렇지만, 러닝의 경우에도 대체로 달리기를 일정 시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어떤 기구를 사용해 단시간에 특정 근육만 자극을 하기보다(물론 이는 훈련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행위의 지속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긴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가령 다이어트가 목적일 경우 신체가 지방을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30분 이상 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달리기 대회 또한 10km부터 시작하여 하프나 풀코스 마라톤 등 일정 거리 이상을 꾸준히 달려야 한다. 장거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러닝의 한 형태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러닝 대회와 자전거 대회를 경험하며 가장 큰 차이가 이것이라 생각을 한다. 자전거는 어떻게든 밟게는 되어 있고 그제 최소 페이스는 보장해 주지만, 러닝은 걸어 버리기 시작하면 페이스를 잃기 쉽다. 앞서 말한 데로 러닝이라는 운동 자체가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조금이라도 집중이 풀리거나 체력이 붙질 않아 걷기 시작하면 그날의 운동 목표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부상의 위험이다. 물론 부상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 안전에 유의하고 적절한 휴식이 병행되면 어느정도 커버가 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말

한 단점 두가지,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러닝 자체가 많은 정신력을 소비하는 만큼 조금만 방심하거나 신경을 덜 쓰게 되면 부상으로 이어지기가 좋다. 여기서 부상이란 꼭 접질리거나 걸려 넘어진 것 같은 사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 러닝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거위발건염에 걸려 고생하였다. 무릎의 양쪽에 있는 인대 중 안쪽으로 거위발 모양의 인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무릎이 움직이면서 이 인대를 자극시켜 결국 염증을 유발했다고 한다. 초보 러너들이 정말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나 역시 러닝을 시작한지 몇 주 안되던 때였다. 달리던 중 불편함이 느껴지더니 결국 거위발건염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일상 생활 자체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나 계단을 내려가거나 특정 자세에서 다리에 힘이 실릴 때마다 고통이 찌르르 밀려왔다. 문제는 이게 꽤나 오래가고, 또 종종 재발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내 경우에는 두 달 정도 고생하였는데 그 후로도 자세가 틀어졌을 경우, 몸이 무거워졌을 경우, 밸런스가 나빠졌을 경우 한번씩 의식이 될 때가 있다.

또 무릎 관절의 소모도 무시할 수 없다. 러닝이라는 운동은 관절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이다. 지금 당장 조금만 달리는 모션을 취해도 바로 느낌이 올 것이다. 바닥에 발을 딛고 무게가 실리는 순간 크던 작던 무릎에 타격을 주게 된다. 중력과 나의 몸무게가 가하는 힘이 바닥으로 내려칠 때, 그 반작용은 고스란히 관절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발바닥의 아치나 다리의 근육들이 어느정도 잡아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결국 특정 관절, 무릎이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특히나 인간의 신체 중 연골은 소모품이라고 하며 관절 역시 어느정도 수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설이다. 러닝이라는 운동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또 빠르게 무릎에 타격을 주는 만큼 운동 효과에 기대는 것이 클수록 무릎에 압박이 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러너들을 보다보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테이핑을 한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 꼭 당장의 부상 상태가 아니더라도 러닝이라는 것을 꾸준히 하려다 보면 무릎의 상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몸무게가 꽤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오히려 러닝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간의 신체적 특성 상 다리를 다치면 많은 부분에서 지장을 받게 된다. 당장 아침에 눈을 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여 많은 행동에 지장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이동을 강행하게 되면 다친 부위를 더욱 자극하게 되거나 반대로 다치지 않은 다리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 나 역시 다리를 다치니 러닝이던 라이딩이던 운동 자체도 못하게 될 뿐더러 출퇴근과 일상 생활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러닝을 하다가 뭔가 이질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페이스를 줄이고 신중을 기하게 된다. 또 조금 몸무게가 늘었다 싶으면 다리에 실리는 하중을 의식하게 된다.

조금 심각한 얘기에서 벗어나서, 넷째는 여행을 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러닝의 경우에도 마라톤 그 이상으로 장거리를 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운동의 특성상 짐을 싣고 움직이는 거나 새로운 지역을 탐험해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어떤 포인트에 도달하는 목적 달성이 있지 않고서는 러닝으로 여행을 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인 중 서울 한바퀴, 약 160여 킬로미터를 33시간 40여분 만에 완주한 이가 있기는 하다. 잠도 못 자고 식사만 겨우 때우면서 그 시간 내내 달린 것인데 그것 역시 시작과 끝을 잇는 길들이 정해져 있었다. 아웃도어라는 행위 자체로는 맞는 말이겠지만 여행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는 다소 어렵다.

또 달리기라는 행위에 초점을 두었을 때 핸드폰과 아주 가벼운 비닐 재질의 물통(플라스틱라고도 한다), 비상용 포도당 캔디 정도만 아니면 이미 몸에 무엇인가를 더 얻는 것이 달리기에 방해물로 여겨지기 좋다.

자 정리하자면 러닝의 단점은 크게 컨디션 등의 신체적 요인에 지장을 받기가 좋다는 것, 그리고 여행과 겸하는 취미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꼽고자 한다. 사실 세분화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게, 본문을 준비하며 러닝을 하는 다른 지인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장점으로는 가지각색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단점은 확실히 부상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만큼 러닝은 신체를 바로 환경에 노출하되, 그 와중에 한계치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오직 두 다리만으로 목표로 한 시간과 거리까지 꾸준히 달려나가기. 심플한 만큼 오로지 나 자신에 집중해야하는 장 단점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다음 편에 계속) 



탈레 노이 이야기 [Thale Noi] (1)

마주(Maju)

뒤늦게 정체성 없음을 알게 된 서른춘기

2024년 2월의 파탈룽(Phattalung)



처음으로 본 라군이었다.

와 바다다! 멋진 노을이야! 라고 감탄하는 순간 'Jom'은 얘기했다.

이건 바다가 아니야. 라군이야.

아. 여행 기간 동안 Jom에게 지겹게 들었던 그 '라군'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대한 라군이 나온다고 했었지.

믿을 수 없이 넓게 펼쳐진, 끝이 보이지 않는 이게 바다가 아니라고?
지도에서 찾아보더라도 믿을 수 없게 커다란 라군이였다.
덕분에 이 지역엔 쌀을 재배하는 논이 많아 시골길을 달릴때면 마치 한국 시골 마을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현지인들은 이 거대한 라군을 탈레 노이(Thale Noi)라 불렀다.
태국어로 탈레는 바다, 노이는 작은.
작은 바다.



내가 사랑하는 시골마을 파탈룽(Phattalung)에 위치한 이 거대한 라군은 동남아에서 가장 큰 조류 보호지역이라고 한다. 파탈룽에서 바라보는 탈레 노이의 반대편은 또한 내가 사랑하는 송클라(Songkhla)가 위치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탈레 노이를 돌았다.
버팔로가 헤엄을 치고, 온갖 새가 날아드는, 오렌지 색의 쌍둥이 집이 비현실적이게 떠 있는, 마치 이상한 나라에 온 듯한 그런 풍경이었다.



송클라와 파탈룽을 이어주는 낭랑림 다리 위에서 치얼스!



한국인은 커녕 유럽인들마저 없었던 태국 남부의 시골동네.
그 곳에서 5일을 머물렀었다.
내 마음을 모조리 빼앗아 간 탈레 노이.
꿈에서도 나오는 사랑스러운 하늘.
파탈룽. 송클라.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비행기 티켓을 샀다.
그리고 7월 중순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스를 잡아 탔다.
15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파탈룽.
다시 파탈룽을 찾은 이유는 오롯이 탈레 노이 때문이었다.

지난 2월 란타섬에서 만난 현지인 친구 ‘Bam’이 고향인 파탈룽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Bam은 파탈룽에서도 아주 한적한 마을에 사는데,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 산다고 했다.

Bam은 태국 남쪽의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섬들을 돌며 음악을 연주하며 지내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와 관광객을 위한 방갈로를 짓고 있다고 한다. (운 좋게 막 완공 된 방갈로에서 공짜로 묵을 수 있었다)

Bam은 “젠장 여기 파탈룽에는 논과 라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지루하기 짝이 없는 동네야” 라고 했다.



Bam이 자신이 살기 위해 직접 지은 집. 매우 불안정하지만 테라스에 앉아있으면 운치가 있다.

Bam이 키우는 ‘코크’와 ‘스프라이트’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Bam의 가족들은 라군에서 생물을 잡아 팔기도 하고, 라군에서만 난다는 ‘끄라쫓’이라는 식물을 말려 엮어 가방과 생필품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오토바이를 타고 탈레 노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내로 나갔다. 마침 어부들이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들을 건어왔다. 바비큐를 위해 막 육지로 건어 올린 물고기를 몇 마리 사기로 하였다.

운이 좋았다. 보트를 가지고 있는 밤의 할아버지가 흔쾌히 보트를 빌려주셨다. 라군에서의 선셋을 보여주겠다는 Bam을 따라 라군으로 출발.

이렇게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에 2,000원이 안된다.





선셋을 보기엔
너무 늦어버린 시간

가다보니 Bam의 아버지가 새우를 잡고 계신다.
탈레 노이에서는 파란 집게를 가진 이상하게 생긴 새우를 잡을 수 있다.
생긴 건 요상하지만, 맛은 어메이징하다.
Bam의 아버지가 잡은 새우를 사기로 하였다.

그 날 밤 물고기와 새우 바비큐와 함께 술 한잔을 즐겼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선라이즈를 보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잠에 들었다.
(다음 편에 계속) 🐱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Bam's 아빠





Bam이 꺼내 온 접시엔
야옹 야옹



아름다웠던 방갈로



그날 밤 정말 멋진 달이 떴다.
멋진 내일을 위하여



표지이미지 :

성수동에서 열렸던 모 대기업 브랜드의 팝업스토어. 파스타와 라비올리 등 이탈리아 음식을 꽤나 저렴한 가격에 레토르트 식품으로 출시하면서, 이를 홍보하고자 이탈리아 레스토랑처럼 구성하였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가 지나가는 길에 방문하였는데 맛은 나쁜 편은 아니었다. 크림파스타의 경우 딱 그 금액 정도의 퀄리티였지만 오일파스타의 경우 의외로 괜찮았다. 라비올리 역시 소스나 토핑을 더 얹으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 다만 면들이 전체적으로 흰색 빛을 띄고 부드러운 편이었는데 정제밀을 써서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다.

파스타라는 음식은 사실 십여년 전만 하여도 고급 음식에 속했던 것 같다. 데이트를 하거나 분위기를 낼 때,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등 어떤 외식의 기분을 낼 때 이탈리아 레스토랑, 속칭 파스타 집을 가고는 하였다. 그랬던 음식이 어느덧 마트에 레토르트 식품으로, 일상의 한 풍경으로 존재하고 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은 물론,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작업물,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아카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10pt 기준 3페이지 정도, 혹은 그 이상 / 프로필 사진
과 필명, 자기소개를 pigheadlab@gmail.com 메일 접수

<지금 이시각>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
(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내 콘텐츠 사용, 문의 등은 우선하여 피그헤드랩
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4. 8, 스물여섯번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www.pigheadlab.com)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문화공간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이번 달 참여 필진 : 김희진, 김유주, 마주, 오종원, X